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13개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입장 유보

광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

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일선 당국의 방역대책과 향후 확산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1일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며,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단계가 격상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는 일단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전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와 축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교회와 절 등 종교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금지되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회관 등 문화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에 대해 시설 운영을 자체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적용한다. 모든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이번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조치도 내려진다.

초·중·고등학교는 2일부터 3일까지 등교가 전격 중지됐다. 목요일과 금요일인 만큼 이번주는 등교가 없는 셈이다.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급속확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박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정동채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조성위원들과 박양우 문화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촉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국가기관 유지·5대 문화권 조성 사업 본궤도 올려야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과제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1일 출범함에 따라 현안인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과 조성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확보 등 핵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성위, 광주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광주시와 문화부는 지난 6월 제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특법 개정 추진상황, 2021년 국비 확보방안 등 현안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8기 조성위는 정동채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관광,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다 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지역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정 위원장은 장관 시절 조성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제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8기 조성위는 이전 7기 조성위 성과를 바탕으로 아특법 유효기간 연장,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7기 조성위의 경우,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2차 수정계획을 통해 4대 역점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7대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개편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5대 문화권 사업(5:5 매칭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가사업인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지만 광주 시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은 걸음마 단계다.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된 데다 5대 문화권 조성사업 자체 등과 맞물린 탓에 민자 유치도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8기 조성위는 관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문화부,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요구된다.

신임 정동채 위원장은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의지를 갖고 출발한 의미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조성위원회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 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낙연 7일 전대 출마 선언... "국가적 위기 책임있게 대처"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이낙연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친 뒤 3차 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는 7일쯤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르면 7일쯤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전당대회 캠프의 운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의원 등 지지세력도 규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은 당권 분리를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7개월짜리 당 대표'라

는 지적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키워드로 이 의원은 '책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무총리로서의 경험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김부겸 전 의원도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곧 출마 선언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당 운영 비전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당권 도전을 준비해 온 송영길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하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靑, 통일부 장관 이인영 검증 착수... 임종석 국정원장·안보실장 관측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의 교체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증동에서 서명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의 재편이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번져

있으며, 이 경우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쇄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로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꾸준히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임 전 실장이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는 것을 비롯, 대북특사, 한반도특보를 맡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